

# 기후플레이션(Climateflation)의 일상화: 현황, 영향, 시사점

2024년 7월 19일 (金)
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  
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# 기후플레이션(Climateflation)의 일상화: 현황, 영향, 시사점

2024.7.19.(금) 정책실 선임연구원 김진솔

-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, 폭우 등 재난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, 농산품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 현상이 일상화
- 평균기온 상승 1°C가 1년 이상 지속시 농축수산물 가격은 2%, 소비자물가는 0.7%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엘니뇨, 라니냐 등 글로벌 이상기후는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,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가중
- 폭염·혹한 일수 증가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는 에너지가격 상승을 견인하고, 가뭄, 태풍 등으로 공급 자체가 어려워지며 에너지 공급 부족을 초래
- 기후플레이션의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△국가 차원 공급망 안정, 물가관리 강화 △스마트팜 등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진작, △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차원 국제공조 체제 강화 등이 시급

## 1. 현황

-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, 폭우 등 재난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
  -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.7도로 평년보다 1.3도 높은 수준을 기록, 6/21에 관측된 올여름 첫 열대야는 118년 만에 역대 가장 이르게 찾아옴
    - 6월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 지역은 △의성 37.1도(19일), △대전 36.6도(19일), △완도 34.2도(18일) 등
  - 장마철 강수패턴도 한 달 안팎으로 지속·연속적으로 내렸던 것과 달리 변칙적/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빈번
    - 7월 17~18일 이틀간 내린 강수량은 과주 594mm, 연천 501mm, 동두천 434mm 등으로 평년 장마기간 평균강수량 356.7mm을 훌쩍 넘는 수치
- 문제는 이상기후가 농산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(Climateflatin)이 수시로 발생
  - ※ 기후플레이션(Climateflation): 2023년 英 BBC가 소개한 신조어로 ‘기후’(Climate)와 ‘고물가’(Inflation)의 합성어
  - 일례로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, 상추 소매가격(7.17 기준)은 100g 기준 1,996원으로 전년 대비 10.4%, 평년 대비 40.7% 급등

- 올해 3월 과학저널 네이처(Nature)는 평균기온 상승 등이 전 세계적으로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
- 서민물가를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바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,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

## 2.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

### ① 빈번한 이상기후로 농산물 등 먹거리물가 상승

- 한국은행 보고서<sup>1)</sup>에 따르면 기후변화 여파로 평균기온 상승시 농산물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,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
  - 1°C 이상 기온이 높아지면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최대 0.4~ 0.5%p 높아지고, 전체 소비자물가는 0.07%p 높아진다고 분석
  - 또한, 장기 평균기온보다 1°C 높은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농산물 가격은 2%, 소비자 물가가 0.7%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
    -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협의체 NGFS(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)의 제4차 탄소배출시나리오에 따른 기온상승을 가정했을 때 2024년까지 농산물가격은 약 0.6~1.1%, 소비자물가는 0.3~0.6% 높아진다고 예측
- KDI<sup>2)</sup>도 최근 신선식품 가격 급등 원인을 기후변화 및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지적, 특히 강수량을 중심으로 여름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분석
  -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며 폭우, 가뭄 등으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약 1~2개월 단기 물가불안이 발생, 소비자물가를 상승
    - 신선식품가격은 과거 추세대비 평균기온 10°C 상승시 0.42%p 상승, 평균강수량 100mm 증가시 0.93%p 상승한다고 추정
  - 다만, 식품·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바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

### ② 글로벌 기후변화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

- 엘리뇨, 라니냐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

1) 조병수·민초희(2024). “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”. BOK 이슈노트 2024-18호. 한국은행.  
 2) 이승희(2024). “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”. KDI 현안분석. 한국개발연구원.

- 엘리뇨 현상으로 주요 산지 수확량이 급감하며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초 톤당 1만달러를 돌파, 커피, 올리브유 등도 주요 식료품 가격 급등
  - 코코아 가격(t당): (2023.12月) 4,196달러 → (2024.3月) 1만80달러
  - 커피원두(로부스타종) 가격(t당): (2024.1月) 2,974달러 → (2024.7月) 4,471달러
  - 올리브유 가격(t당): (2023.1Q) 5,926달러 → (2024.1Q) 1만88달러
- ※ 엘리뇨(El Niño): 남미 페루 연안 등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
- 엘리뇨 현상의 반대개념인 라니냐로 인해 농산물 작황부진도 심각. 아르헨티나, 브라질 등 미국 중남부의 주요 곡창지대 가뭄, 중국 남부 곡창지대 홍수 등으로 밀, 옥수수, 대두 파종 및 생육 부정적 영향
- ※ 라니냐(La Niña):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저수온 현상

○ 문제는 글로벌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식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가중

- 국내 식량자급률(사료용 제외)은 1970년 86.1% → 2022년 46.0%로 식량 중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
- 곡물자급률(사료용 포함)의 경우 1970년 80.5% → 2022년 20.1%로 급감. 특히 쌀(104.8%)을 제외한 밀, 옥수수, 콩의 자급률은 각각 0.7%, 0.8%, 7.7%에 불과
- ※ 출처: 농림축산식품부 양곡 자급률 자료(2024.1月 발표, 전체중 기준)

㉓ 극한 기후로 에너지가격 상승 초래

- 폭염·혹한 일수가 늘어나며 냉난방 수요가 급증, 전력사용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
  - 기온 상승 충격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석유류 가격도 1.6% 상승, 농산물 2%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 (한국은행 보고서)
-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은 글로벌 물류시스템을 교란, 원유 등 공급난을 가속화,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지장을 주는 등 에너지 공급 부족을 초래

### 3. 시사점 및 향후 과제

- 빈번한 이상기후로 기후플레이션 현실화는 서민물가를 위협,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공급망 안정, 물가관리 강화가 필요
  - 기후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시 매년 일어나는 기온 변화에 대한 물가 불안심리가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선제 대응책 마련

-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기후환경에 적합한 농작물 품종 개발, 국내 농산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긴급요
  - 날씨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팜 산업을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필요
  - ※ 참고: “K-스마트팜 동남아 진출 가속화... 269억弗 수출 MOU 체결” (뉴시스, 2024.7.18.)
  
-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국제 공조 체제 강화 및 관련 기술교류 협력 확대
  - 정부가 지난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시작한 ‘K-라이스벨트’ 사업과 같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원조 및 한국의 벼 종자 및 농업기술 전파하는 다양한 사업 전개
  
-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물가변동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바, 정치권에서는 기후변화를 단순 소모성 이슈가 아닌 주요 아젠다로 다룰 필요